

newsletter

SSK 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제 15호 발행일 2019년 4월 5일 | 발행 SSK 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http://http://insdv.nk.ac.kr/SSK>

→ 공동 연구원 칼럼

함께 열 남북 여성문화, 그 가능성에 대해

천팔백 년 대부터 차별에 맞선 서구 여성노동자들의 저항과 단결이 50여 년간 지속 된 결과, 1911년 3월 8일 제정된 세계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을 한국사회는 그 어느 해보다 의미있게 맞이했다. 지난해부터 봇물처럼 터진 #Me Too와 #With You를 지지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일 년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함께 맞서자”는 구호가 더 높게, 더 절연하게 나타났다. 총체적으로 한국은 가부장문화의 균열이란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성평등 사회를 촉구하는 요구는 지속되리라는 전망이다.

해방 시공간 북조선에서는 1946년 7월 30일 남녀평등권 발표 이듬해부터 3월 8일 ‘국제부녀절’을 기념하여 남한보다 앞서 여성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한국사회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그려진 북한은 ‘억압적 독재국가’, ‘인민의 삶은 없는 사회’로, 이들이 향유하는 일상적인 문화와 삶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우리는 5천 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 다”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

령의 평양 연설 문구처럼 남북주민의 삶은 분단의 현 재성을 간직하며 구성되어왔다. 남북의 자유로운 교류가 이루어질 듯하면서도 불투명하게 조망되는 이 시기, 남북이 열리면 과연 남북여성들은 어떻게 조우할 수 있을까 궁금증이 든다. 물리적 분단이 남북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투과했으며 어떤 문화적 차이를 구축했는지 그 누적의 면면들을 확인하는 작업은 어쩌면 분단의 기간 이상 걸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재생산되어온 정쟁적 분단 담론에서 벗어나 상호배타적으로 구성된 분 단 이데올로기 너머 북한 문화를 조망하고 통합을 모색하려는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분단체제가 만든 제한적 담론은 우리자신을 북한사회/문화/사람에 대한 문해 능력의 퇴화와 몰이해의 주체로 만들어 다름을 무조건 적대시하는 빈곤하고 척박한 문화로 재생산해왔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분단역사와 안보담론에서 가장 억눌린 것은 바로 여성의 목소리였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여성과 가족 문제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북한이 실행해 온 돌봄의 사회화 제도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연기 시도 사태 이슈에





전주게 된다. 근본적으로 북한의 남녀평등은 성인지에 대한 이해를 구하거나 여성해방 차원이 아닌 권력 중심의 통치 질서 속에서 대상화되어왔다는 점은 여실하다. 그러나 북한이 일찍이 실시한 모성 정책은 산전산후 휴가, 마을 탁아소와 밥 공장, 세탁공장 등 돌봄을 사회화함으로써, 여성들을 노동의 주체로 나서게 한 효과가 뚜렷하므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일·생활 균형 문제와 촘촘한 돌봄문제 등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이슈임은 틀림없다.

연구자가 진행해 온 연구들에 의하면 북한여성들은 집단주의 질서 속에서 살아오면서 국가권력과 가부장적 규범을 두텁게 내면화해왔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이라는 극한의 생존 경험을 통해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개인이 분출되어 집단주의 체제에 조우하면서도 경합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적 규범과 다르게 실천하는 여성들의 변화는 상당히 의미있다. 북한여성들은 경제활동을 통해 전통적인 가부장질서의 균열을 이끌고 있고, 공간

경험을 통한 확장성과 일상의 주체로 나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남북여성이 함께 문화와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의 상상이 가능하다고 본다. 남북이 열리는 날이 오면 미투운동으로 여성주의적인 인식을 확장한 남한여성들과 전통적 규범을 깨고 생존의 주체가 된 현실적인 북한여성들은 함께 새 세상을 만들 것이다. 남북여성의 만남은 통합사회의 생경한 풍경이자 함께 나갈 새로운 여성문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권금상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북한대학원대학교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단 공동연구원

→ 연구 성과

북·중 접경지역의 국경 형성과 ‘조선인’의 혼종성: 식민시기와 냉전시기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통권 175호

이 글은 북·중 접경지역의 ‘조선인’ 집단이 근대 국가의 생성과 함께 각각 북한과 중국의 공민으로 자리잡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조선인 혼종성의 면면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인’은 식민시기 전후 한반도에서 만주로 이주한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을 지칭한다. 기존 연구들은 글로벌 이주의 맥락에서 이주민들의 혼종성에 주목해왔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인 집단은 초국적 이주의 결과라기보다 국경이 지역 거주민을 가로지른 양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식민시기 만주 조선인은 일본제국과 다수의 인구 집단인 중국인 세력 사이에서 위치한 종족 집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해방 이후, 북한과 중국이 성립되고 냉전과 국경 형성이 맞물린 국면에서 조선인 집단은 각각 북한의 중국연고자와 중국 조선족이라는 국가적 경계로 나뉘어졌지만, 사회주의 형제국이라는

무임이 교차하는 특수한 범주로 존재하게 된다. 북·중의 국경이 강화되는 과정에서도 오랜 역사에 걸쳐 형성된 이동성과 양국 간 사회주의 혈맹 관계는 지역의 거주민들에게 국가 정체성과 종족 정체성이 경합하는 유동의 공간을 허락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조선인’의 혼종성이 북·중 접경지역의 현지화된 실천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최선경
북한대학원대학교

→ 연구 단 동 정



01

콜로키움

본 연구센터에서는 3월 7일 북한대학원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한준성 박사를 초청하여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날 한준성 박사는 이주민의 급증으로 인하여 한국이 다문화사회를 넘어 이민사회로 변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와 관련된 차별과 폭력 그리고 이방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02

**해외협력기관 학술회의
“통합의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만들기”**

본 연구센터는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상해 사범대학교 학술교류를 진행하였습니다. 25일 오전, 서울대 장달중 명예교수님의 '한국 정치변동과 문정부의 외교정책' 특강이 있었습니다. 같은날 오후에는 본 연구센터 및 서울대학교,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한국 학자들과 상해사범대학교, 상해정법대학교, 푸단대학교, 상해사회과학원 소속의 중국 학자들이 한데 모여 한중관계의 발전 방안과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중 간 대화채널을 만들어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03

북토크

지난 3월 29일 목요일 4시 역사책방에서 배우 문예봉에 대한 한상언 대표님의 북토크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영화를 전공한 한상언 대표님은 “삼천만의 연인”이라 불리던 문예봉이 월북한 과정부터 이후 북한 영화계에서 최고의 배우로 출연했던 작업들, ‘숙청’ 이후 1980년대 영화계에서 복귀해 작업한 ‘이후’의 삶까지 균형 있게 다뤄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배우 문예봉을 통해 북한 영화계를 훑어보는 한편 문예봉이라는 한 배우에게도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영화 100주년, 월북 예술인에 대한 해금 30년이 넘는 2019년 우리에게 38선 이북의 영화계를 기억하며 기록하려는 중요한 시도를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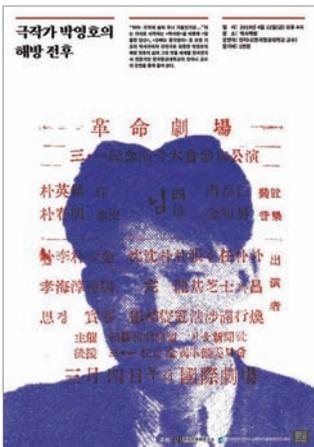
04

북한연구학회 춘계패널

본 연구센터는 3월 28일(목)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회의에서 북한대학원대학교 구갑우 교수님의 “‘두 평양 시간’: 북한 특유의 시간의 마음”, 성균관대 조은정 교수님의 “단정 수립 후 문학자의 ‘전향’과 문학의 변전”, 북한대학원대학교 김태경 교수님의 “1950년대 동구권 방문 북한 작가들의 ‘평화’ 재현”에 대한 발표를 듣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자로는 서울대 홍종욱 선생님 성신여대 김준현 선생님 한국외대 김태우 선생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 향후 일정

북토크



2019년 봄 북한대학원대학교와 이제는 종로구에 빼놓을 수 없는 동네책방이 된 역사책방이 함께 하는 북토크가 다시 문을 엽니다. 4월까지 갖는 3번의 북토크는 의미 깊게도 한상언영화연구소가 최근 출판을 시작한 월북 영화인을 조명하는 10권의 시리즈 도서와 연계해 진행합니다. 앞으로 전권 10권으로 출판될 시리즈 중에서 북한대학원대학교X역사책방 북토크는 2인의 영화인 연극인으로, 문예봉, 박영호를 조명합니다. 아울러 월북 문학가 중 누구나 이름을 익히 알고 있는 구보 박태원을 조명하는 시간도 함께 가집니다.

앞으로 남은 4월의 북토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4월 5일 금요일 6시 역사책방에서 구보 박태원의 차남 박재영 선생님을 모시고 아버지 박태원 작가의 작업을 꾸준히 추적해온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치시는 일 없이 한결같이 많은 연구자들에게 영감과 자료를 풍성히 공유해주시는 선생님으로부터 아버지 박태원, 작가 박태원에 대해 다양한 자료로 뒷받침된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구보에 대한 사랑으로도 지금까지도 아버지와 삼촌(미술가 박문원)에 대한 자료를 수집, 연구하시는 선생님과 함께, 우리 문학사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문인 박태원을 통해 분단된 문학사를 조금이나마 다시 이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4월 12일 금요일 4시 역사책방에서는 극작가 박영호를 두고 한국항공대 전지니 교수님과 함께 하는 북토크가 진행됩니다. 월북 예술인들에 대한 38선 이남의 무지와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작은 기획으로 갖는 북토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박영호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오빠는 풍각쟁이야”의 작사가이기도 합니다. 박영호의 연극연출과 작사 등에 대해서 월북 이후 행보를 특별히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작게 가진 처음의 관심이 조금씩 더 쌓여가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인정으로 이어지는 변화의 흐름에서, 영화인 연극인을 매개로 하는 서로의 문화에 대한 앎과 공감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월북 예술인을 생각하며 지금껏 잘 몰랐던 38선 이북의 문화, 문화계가 걸어온 역사와 현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언론 속의 심연북한연구소

인터뷰



“이 프로세스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봐야 될 거 같아요. 대외적으로는 정상국가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다른 나라하고 차이가 없다.”

이우영

일주일 뒤 알리던 옛날 北매체 아니다... “신속 보도” / MBC. 2019. 02. 27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시작한 지 4년째로 접어들었다”며 “지금 김 위원장이 성과를 내야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경제 분야밖에 없어 나온 메시지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회담 결렬 뒤 김 위원장이 ‘새로운 길’을 택할지 여부에 관심도 쏠렸으나, 일단 김 위원장이 ‘사회주의 경제발전 총력집중’ 노선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구갑우

“김정은 ‘하노이 결렬’ 뒤에도 첫 메시지는 ‘경제’ / 한겨레 2019. 03. 10.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지역별 가격 차가 사라지면 시장이 질적으로 성숙해진다”며 “물건을 만드는 이 입장에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져 생산성,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짚었다.

양문수

“옥류관 냉면도 앱으로 배달...손전화 ‘손맛’에 빠진 북한” / 한겨레 2019. 03. 19.

칼럼

더 근원적으로는 식민과 분단을 거쳐 단 한번도 평화로운 상태가 어떤 것인지 경험해보지 못한 시민들은 한반도의 평화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네 일상을 바꾸어내는지 기늠하지 못한다. 상상할 수 없는 미래는 기대와 열망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그만큼 현재 삶의 동력으로 전환될 수 없다. 시민들이 평화라는 미래를 위해 현재 삶의 희생을 십사리 감내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 앞에 놓인 현실이 녹록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다.

김성경

“[애 한국사회] 한반도 평화와 시민사회” / 한겨레 2019. 03. 06.

적에서 친구로 가는 길은 지난한 과정이다. 한반도 평화과정에는, 한국전쟁에서 비롯된 남북미중의 적대와 탈냉전시대 한반도 핵문제가 얽혀 있다. 그 가시밭길에는 서로를 적으로 만드는 것에 이해관계를 가진 정치세력이 남북미중 내에 포진해 있다. 국제적 수준에서, 한반도 갈등의 당사자들이 공동의 적을 만들어 친구가 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 경로다. 한반도 갈등의 당사자인 한국이 평화과정을 중재하는 모순적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평화과정이 장기 지속의 과정임을 고려하면서, 핵심 쟁점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포함된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습을, 즉 한반도의 중단기 미래에 대한 설계도를 제시하는 기획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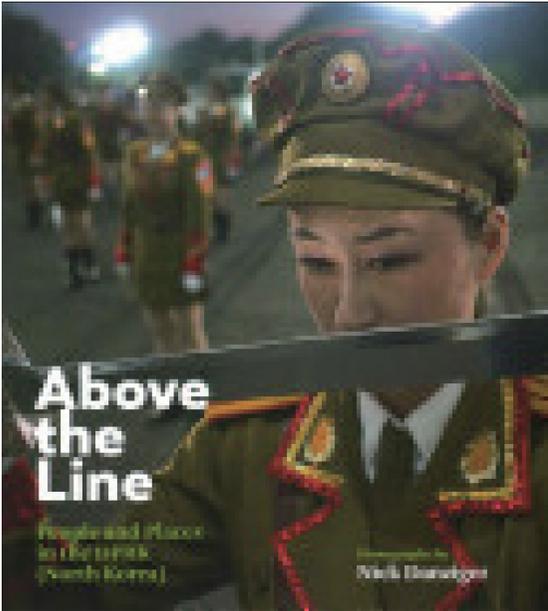
구갑우

“[아침을 열며] 적에서 친구로 가는 길의 어려움” / 한국일보 2019. 03. 28.

→ 칼럼 연재 : 책의 마음, 마음의 책

그들에게 북한은 무엇일까?

Nick Danziger (2014), *Above the Line: People and Places in the DPRK (North Korea)*, The British Council



2013년 8월 중순 세 명의 영국인이 평양의 기차역에 도착했다. 중국의 베이징에서 출발해 약 24시간이 걸린 여정이었다. 기차여행은 풍경을 읽게 한다. 그들은 창밖에 펼쳐진 중국의 시장경제와 손으로 일하는 북한의 시골을 보았다. 풍경은 주체의 내면의 발견물이다. 그들이 탄 기차가 압록강을 건너 신의주에 도착해 두 시간을 정차했다. 보안원은 화물차에 실린 백색 가전제품, 평면 텔레비전, 잡지, 바나나박스 등을 검색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카메라, 노트북컴퓨터, 휴대전화의 반입도 허용되었다. 그들은 신의주부터 평양까지의 기차에서만 안내원 없는 여행을 했다.

그들은, “가장 고립되어 있는 국가” 북한에서, 사진과 글쓰기를 매개로 주민 스스로 이야기하게끔 하는 위

크샵을 열고자 했던 영국문화원 일행이었다. 그들은 미얀마에서 비슷한 일을 한 바 있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북한에서 영어교사 양성을 지원했던 영국문화원은, 새로운 문화협력의 기회로 그들의 방북을 생각했다. 그들의 문화외교는 북한을 ‘이해’하려는 시도다. 그들은 왜 이 일을 하려는 것일까. 영국주재 북한대사관과 이 협력을 사전에 논의할 때, 북한대사관 관계자는 “시작이 반이다” 등의 속담을 인용하며, 그들을 도우려 했다고 한다.

준비과정에서 그들은 평양의 어떤 기관과 함께 할 것 이라는 문제에 직면했다. ‘조선사진가동맹’이 첫 후보였다. 그러나 최종 순간 북한은 ‘대외문화연락위원회’를 내세웠다. 1950년대 중반 만들어진 이 위원회는 북한관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기구다. 그러나 영국문화원의 의도는 무산되었다. 대신 그들의 문화외교는 2014년 출간된 『38선 이북』(*Above the Line*)란 사진첩으로 남았다. 그들은 평양, 원산, 남포, 사리원 등을 여행하며 북한주민의 일상의 시간을 정지된 공간에 담고, 쓰고자 했다. 그들은 ‘반인반신’(半人半神)의 거처이자 특권의 도시라 생각했던 평양을 벗어나야 했다. 오리엔탈리즘의 시선을 ‘가져야 하는’ 그들의 내면이 사진에 어떻게 투사되었는지, 이 사진첩과 더불어 2015년 4월 홍콩에서 열린 사진전을 맞이하며, 질문을 했다.

책의 표지는, 북한의 대집단체조 ‘아리랑’에 등장하는 군복을 입고 칼을 든 여성무용수다. 그럼에도 당의 교시로부터 자유로워 보이는 주민을 만나려 했던 그들

의 의지의 일단을 발견할 수 있다. 김일성·김정일의 동상이 서 있는 만수대에서 절을 하는 주민들, 지하철에서 허공을 응시하는 세 명의 승객과 무언가를 읽고 있는 한 사람, 치마저고리를 입고 있는 여성과 전통복장을 하지 않은 남성들이 함께 춤추는 장면, 대동강변에서 카드놀이를 하고 있는 노인들, 김책공대 도서관에서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학생, 머리모양이 번호로 매겨져 있는 미용실과 이발소의 남녀들, 평양의 돌고래 수족관, 쪼그려 앉아 휴대전화를 보는 여성, 원산의 해수욕장, 사리원 미곡 협동농장의 농민들, 손주들 공부를 도와주는 할아버지, 6시30분에 일어나 9시30분에 잠자고 일을 하며 '위대성교양'과 '컴퓨터학습시간'과 '보도및문화생활'을 해야 하는 청년 협동농장의 일과표 등이 사진작가 단지거(Nick Danziger)의 시선에 잡힌 풍경들이다.



사진들 다음에는 글을 담당한 맥클레인(Rory MacLean)이, 적어도 한 명의 공식적 안내원이 배석한 가운데 통역과 함께 했던, 사람들 인터뷰가 인물사진과 함께 실려 있다. 통계학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평양 지하철의 여성 운행관리원, 평양의 청각장애인 여학생, 북한이 개발한 컴퓨터 운영체제 '붉은별'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 시인, 생명과학을 전공한 돌고래 조련사, 운동선수 집안의 축구선수, 도쿄에서 태어난 화가, 고급차를 타는 퇴역장성, 은퇴 후에는 안무가가 되려는 아리랑의 무용수, 저인망 어선의 선장이 되고픈 어부, 자신의 손자도 농부가 되기를 원하는 퇴역농부, '돈주'의 딸로 태어나 평양의 외국어대학을 나와 공무원이 되어 그들을 안내했던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소속의 여성 등이 그들이다.

책의 서론을 쓴 전임 평양주재 영국대사 에버라드(John Everard)는, 북한이 기이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악몽으로 다가 오고, 지나간 시대의 이상한 유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지하철이 달리고 있는, 실재하는 현실의 국가임을 인정한다. 이 책의 사진과 글이 북한주민의 인간성을 드러내는데 성공했다는 것이 그의 평가다. 다시금 질문은 그들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타국과 타국의 주민을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고자 하는 의지로 읽고 싶다. 타자인 북한을 수단으로조차 대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에 이 책이 주는 울림이 있을 까를 생각해 본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